

한국과 미국 유아의 의사소통에서 주제 수행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Topic Performance: A Cross-Cultural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3-Year-Old Children

이 순 형*

Yi, Soon Hyung

Mullen, Mary K.**

성 미 영***

Sung, Mi Yo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the topic performance of 3-year-old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Sixteen mother and child dyads (8 Americans and 8 Koreans) were tape-recorded during naturally occurring conversations. The tape-recorded data were transcribed on the observational checklist by Kertoy Vetter(1995).

Korean children engaged in topic performance nearly twice as often as American children. Korean children engaged in topic termination/initiation and continuation more often than American children. Also, Korean children engaged in topic collaboration and incorporation more often than American childre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off-topic.

1. 서 론

유아의 주제 수행은 의사소통 의도와 더불어 화용론의 한 영역에 해당한다. 의사소통 의도가 전체 대화 구조와의 관계나, 이전 혹은 이후 발화와 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산출된 발화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화용론의 측면을 반영한다면, 주제 수행은 현재의 발화가 그 이전 혹은 이후의 발화와 관련하여 가지는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화용론의 분야(Chapman, 1981)에 속한다.

Keenan과 Schieffelin(1976)이 주제 수행의 범주를 구분한 이후, 유아의 연령에 따른 주제 수행 기술의 발달과, 놀이감 및 상황이 유아의 주제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Williams College 심리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었다. 미국에서는 생후 30개월 정도의 나이 어린 유아도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대화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음(Foster, 1986)이 입증됨에 따라 의사소통의 한 과정인 유아의 주제 수행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2세 전후의 한국 유아도 주제를 수행하였다(조명환, 1982).

아동이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특정 주제를 어떻게 지속해 나가는지는 아동의 중요한 언어 및 인지능력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다. Keenan과 Schieffelin(1976)이 아동과 성인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주제 수행(topic performance)의 범주를 구분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들의 범주 구분을 토대로 주제 수행을 연구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주제 수행 모델은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들이 제시한 주제 확립 모델은 크게 연속적 담화(continuous discourse)에 해당하는 주제 유지(topic continuation)와, 불연속적 담화(discontinuous discourse)에 해당하는 주제 변화(topic change)로 구분된다. 제시된 주제의 지속을 의미하는 주제 유지는 다시 주제 협력(topic collaboration)과 주제 보완(topic incorporation)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제 협력이란 바로 이전의 발화와 내용이 일치하는 발화를 의미하며, 주제 보완은 바로 이전의 발화에서 일부 명제를 차용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발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발화와, 앞에서 제시된 주제를 다시 소개하는 발화는 주제 변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주제 범주의 구분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Keenan과 Schieffelin(1976)은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뚜렷하게 변하기보다는 담화의 초점만이 변경되는 현상을 주제 보완의 범

주에 포함시켰으나, Goodenough와 Weiner(1978), Schegloff와 Sacks(1973)는 주제가 미묘하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주제 초점의 변화'(topic shading)라는 용어를 붙여 하나의 새로운 범주로 구분하였고, Hurtig(1977) 역시 이를 주제 보완의 범주와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들은 주제 초점의 변화를 주제 유지의 범주와 구분한 연구와 주제 초점의 변화를 주제 유지의 범주에 포함시킨 연구로 양분된다.

위의 주제 수행 모델(1976)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먼저 Roth와 Spekman(1984)은 아동의 화용론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틀의 한 영역으로 '담화의 사회적 구성'을 설정하고 그 하위영역에 주제 제시, 주제 유지, 그리고 주제 종결을 포함시켰다. Wanska와 동료들(1986)은 주제 수행의 범주들 가운데 주제 제시와 주제 초점의 변화에만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Foster(1986)는 주제 제시와 주제 유지의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Kertoy와 Vetter(1995)는 주제 수행의 범주를 구체화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제 협력과 주제 보완의 범주는 Keenan과 Schieffelin(1976)이 제시한 주제 유지와 일치하고, 주제 제시는 이들이 설정한 주제 변화 범주의 하위영역인 새로운 주제의 소개에 해당한다. Kertoy와 Vetter(1995)는 Keenan과 Schieffelin(1976)이 주제 유지로 구분한 발화를 좀더 세분화하여 주제 협력 및 주제 보완 이외에 주제 반응(topic response)이라는 독립된 영역을 새로 설정하였다. 주제 반응이란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 상대방이 처음으로 보이는 언어적 승인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주제를 확장하는 메시지 명료화(message clarification)와, 이전의 발화와는 관련이 없으면서 새로운 주제로 승인되지 않은 발화를 의미하

는 주제 이탈(off-topic)의 범주도 새로 설정하였다. Kertoy와 Vetter(1995)의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주제 유지를 하위영역인 주제 협력과 주제 보완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Keenan과 Schieffelin(1976)이 주제 유지를 주제 협력과 주제 보완으로 구분하는 것은 였으나 Kertoy와 Vetter(1995)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를 주제 유지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분석하여 두 하위영역간의 차이를 간과했다. 따라서 주제 유지를 주제 협력과 주제 보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주제 수행에 관한 초기의 견해는 유아의 경우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상대방의 발화에 적절한 응답을 할 능력이 없다는 Piaget의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70년대 접어들면서 이와는 다른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Keenan(1974)은 생후 33개월 정도의 나이 어린 아동도 대화를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3세 유아가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 전략(repetition)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Keenan & Klein, 1975)와, 만 2세에서 3세 유아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성인의 발화를 일부 모방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첨가하면서 주제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Bloom, Rocissano, & Hood, 1976)도 유아의 주제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아의 주제 수행에 관한 70년대의 연구들은 주로 나이 어린 유아도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이었는데, 특히 Keenan과 Schieffelin(1976)의 연구는 유아의 주제 수행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해 주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담화의 주제를 다루는 기술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되는데 실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가 담화를 통해 주제를 조

작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Brinton & Fujiki, 1984; Chapman, 1981; Foster, 1986; Wanska & Bedrosian, 1985)으로 나타났다. 먼저 만 5세, 9세 아동과 성인 6쌍을 대상으로 담화에서의 주제 조작 기술의 발달을 조사한 연구(Brinton & Fujiki, 1984)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제를 유지하는 비율은 높아진 반면, 주제를 소개하거나 이전의 주제를 다시 소개하는 주제 변화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제를 유지하는 발화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주제 초점의 변화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제 유지의 범주를 주제 협력과 보완으로 구분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Wanska와 Bedrosian(1985)은 만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자유놀이 상황에 나타난 담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아동은 어머니에 비해 불연속적인 담화를 보였으나, 아동의 연령과 언어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제를 더 많이 유지했으며 주제 초점의 변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정교화된 대화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 비해 더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한 Foster(1986)는 생후 1개월에서 2년 6개월된 유아를 대상으로 대화의 주제를 제시하고 유지하는 능력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처음에 자신과 관련된 대화 주제에만 집중하였으나, 생후 5개월경에는 조작적 기술이 출현했으며, 만 1세가 되자 지시적 몸짓이 발달하면서 물리적 환경 내의 사물에 관한 주제를 제시해서, 결국에는 언어 능력의 발달로 인해 비가시적인 무형의 사물에 대한 참조가 가능해졌다. 또한 주제 유지의 경우에는 우선 일상적인 맥락 내에서만 주제가 확장되었으나 생후 2년 6개월에 이르러서는 일관된 주제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주제 수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주제 수행 능력의 전반적 발달만을 살펴보았으며, 동일한 문화권, 특히 서양 문화권 내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에 나타난 주제 수행의 경향과, 유아가 처한 상황에 따른 주제 수행의 차이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국내에서는 하나의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성미영(1997)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주제 수행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보육 경험이 있는 유아가 보육 경험이 없는 유아보다 주제에서 더 빈번하게 이탈하였다.

유아의 언어는 각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인지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 문화권의 인지 구조의 차이에 따라 의사소통의 구조가 다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유아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주제 수행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의 발달에 관해 최근까지 이루어진 비교문화적 연구들은 유아의 의사소통 과제 수행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연구하기보다는 어머니의 반응이나 양육행동, 신념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연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Bornstein과 동료들(1992)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유아의 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았으며, Richman과 동료들(1992)은 케냐와 미국의 어머니가 유아와의 대화에서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어머니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어머니들에 비해 유아의 사회적 탐색에 더 반응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케냐의 어머니들은 언어적 자극보다는 신체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미국 어머니들은 언어적 반응과 시각적 반응을 빈번히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분석

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량이 유아가 보이는 반응의 차이를 이끌어낼 것임을 시사한다.

위 연구에서처럼 문화권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량은 유아의 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가정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유아 자신의 인지적 발달 수준과 유아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적 특성으로 생각된다. 만약 유아의 인지 발달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유아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적 요인은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언어 구조뿐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발달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 구조상 문법 구조나 화용론적 기능이 다르므로 이러한 언어 구조의 차이가 유아의 주제 수행에 차이를 가져올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주제 수행의 능력이 있으며, 유아들의 주제 수행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주제 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1]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주제 종결 및 제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2]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주제 유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2-1]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주제 협력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2-2]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주제 보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3]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주제 일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개월에서 44개월까지였으며, 한국 유아는 평균 40.1개월, 미국 유아는 평균 40.9개월이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아는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었다.

2. 연구 도구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유아의 주제 수행 비교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 유아와 어머니 8쌍, 보스톤에 거주하는 미국 유아와 어머니 8쌍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은 중류층 출신이며,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었다.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집단간 비교를 위해 각 집단의 성별(남아 4명, 여아 4명)과 출생순위(첫째 3명, 둘째 및 셋째 5명)를 동일하게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은 37

이 연구에서는 Kertoy와 Vetter(1995)의 주제 수행 범주를 성미영(1997)이 수정·보완한 범주를 사용하였다. 성미영(1997)은 Kertoy와 Vetter(1995)의 주제 수행 범주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Kertoy와 Vetter(1995)는 주제 수행을 주제 제시, 주제 반응, 주제 협력, 주제 보완, 메시지 명료화, 주제 일탈, 그리고 판단이 애매한 발화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주제의 제시는 동시에 이전의 주제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주제의 제시, 유지, 종결이라는 주제 수행의 연속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미영(1997)은 주제 제시를 ‘주제 종결

<표 1> 주제 수행의 범주 구분

범 주	정 의(예 문)
주제 종결 및 제시	바로 이전의 진술과 관련이 없는 주제로 변화시키는 발화 (엄마: “지영이 시험지 할 시간이예요.” 유아: “이거 내거야?” 엄마: “그건 언니거.”) (Mother: “What did you do today?” Infant: “What’s this?”)
주제 협력	바로 이전의 진술과 관련된 주제를 유지하는 발화 (엄마: “빨간색 있어?” 유아: “응, 이거 빨간색.”) (Mother: “I will be with you always?” Infant: “No.”)
주제 보완	바로 이전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발화 (엄마: “이런 애들은 꼬리가 있을까?” 유아: “응, 엄마 꼬리 만져봐.”) (Mother: “Did you make a vest?” Infant: “Yeah a vest. But we didn’t dress up.”)
주제 일탈	진행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 없이 주제를 방해하는 발화 (엄마: “그래 기차가 빨간색이네.” 유아: “저기 모자가 있네.” 엄마: “기차는 어디까지 갈까?”) (Mother: “It’s a blue car.” Infant: “Oh, Thomas!” Mother: “It’s a small car?”)

및 제시'의 범주로 구체화해서 사용했다. 또한 주제 반응의 범주는 새로운 주제의 제시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을 의미하므로 독립된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메시지 명료화는 주제 수행보다는 의사소통 의도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주제 수행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 수행의 범주는 <표 1>과 같다.

이상의 주제 수행 범주에 따라 유아의 발화를 단위로 하여 그 빈도를 관찰표에 기록함으로써 유아의 주제 수행을 살펴보았다.

3. 연구 절차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를 2시간 동안 녹음하였다. 유아가 보육 시설에 다녀온 후 이루어진 어머니와 유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녹음된 자료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연구자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연구자에 의해 전사되었다. 주제 수행의 범주는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2인에 의해 판별되었으며, 총 1,706회의 주제 수행에 대한 관찰자(3인)간 일치도는 주제 종결 및 제시가 96%, 주제 협력이 99%, 주제 보완이 97%, 주제 이탈이 96%로 나타났다. 관찰자간 평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음된 자료를 근거로 다시 토론하여 3인이 일치한 것으로 판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되었으며, 통계는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Whitney 검증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 8명씩 모두 16명의 유

아를 대상으로 가정 상황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진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주제 수행을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 유아는 총 1,706회의 주제 수행을 보였으며, 주제 종결 및 제시는 191회(11.2%), 주제 유지는 1,477회(86.6%), 주제 이탈은 38회(2.2%)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연구 대상 유아의 주제 수행에서 주제 유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제 유지의 하위범주인 주제 협력에서 1,142회(77.3%), 주제 보완에서 335회(22.7%)의 빈도를 보였다. 즉 유아들은 주제 보완보다는 주제 협력을 훨씬 더 많이 산출했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한국 유아는 총 1,180회의 주제 수행을 보였으며 주제 종결 및 제시는 128회(10.9%), 주제 유지는 1,028회(87.1%), 주제 이탈은 24회(2.0%)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한국 유아의 주제 수행에서 주제 유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유아의 경우 주제 유지의 하위범주인 주제 협력에서 767회(74.6%), 주제 보완에서 261회(25.4%)의 빈도를 보였다. 즉 한국 유아들은 주제 보완보다는 주제 협력을 훨씬 더 많이 산출했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미국 유아는 총 526회의 주제 수행을 보였으며 주제 종결 및 제시는 63회(11.9%), 주제 유지는 449회(85.4%), 주제 이탈은 14회(2.7%)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미국 유아의 주제 수행에서도 주제 유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 유아는 주제 유지의 하위범주인 주제 협력에서 375회(83.5%), 주제 보완이 74회(16.5%)로 주제 보완보다는 주제 협력을 훨씬 더 많이 보였다. 미국 유아와 한국 유아간에 주제 보완보다는 주제 협력의 언어 산출이 많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 이유는 인지적 부

담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주제 보완은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그 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상위의 의사소통 과정에 유사한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주제 협력은 상대의 진술에 그저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주제 수행이 유지된다. 주제 수행에 요구되는 인지적 부하량을 계산한다면 주제 보완은 협력보다 더 큰 인지적 부하량을 필요로 한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주제 수

행에서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검증을 한 결과,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주제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한국 유아의 주제 수행 빈도는 1,180회로 미국 유아의 주제 수행 빈도(526회)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보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주제 수행을 더 많이 보였다.

<표 2>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주제 수행 비교

주제 수행	한국 유아(N=8)		미국 유아(N=8)		Z값
	총빈도(%)	평균빈도	총빈도(%)	평균빈도	
주제 종결/제시	128(10.85)	16.00	63(11.98)	7.88	-2.21*
주제 유지	1028(87.12)	128.50	449(85.36)	56.12	-2.63**
주제 일탈	23(2.03)	3.00	14(2.66)	1.75	-.91
계	1180(100.00)	147.50	526(100.00)	65.75	-2.58*

* $p < .05$ ** $p < .01$

주제 수행의 하위범주 가운데 주제 종결 및 제시의 경우 한국 유아(128회, 10.9%)와 미국 유아(63회, 11.9%)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보다 주제를 더 자주 제시하고 종결하였다. 주제 유지의 경우에도 한국 유아(1,028회, 87.1%)와 미국 유아(449회, 85.4%)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보다 주제를 더 많이 유지하였다. 반면 주제 일탈의 경우에는 한국 유아(24회, 2.0%)와 미국 유아(14회, 2.7%)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주제 유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주제 유지의 하위범주인 주제 협력과 주제 보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3>

을 보면, 주제 협력의 경우 한국 유아(767회, 74.6%)와 미국 유아(375회, 83.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보다 주제에 더 많이 협력하였다. 다음으로 주제 보완의 경우 한국 유아(261회, 25.4%)와 미국 유아(74회, 16.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보다 주제를 더 많이 보완하였다.

이처럼 한국 유아의 주제 수행이 미국 유아의 것에 비해 더 풍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는 주제 수행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두 문화권의 유아는 주제 수행의 풍부성에서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주제 수행은 언어적 유창성과 관련되며, 언어 산출능력에서 언어적 유창성은 곧 언어 구조와 직결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언어 구

조가 영어 구조와 달리 주제 수행에 요구되는 인지적 부하량이 적다면 한국어의 언어 구조 특성으로 인해 한국 유아는 주제를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this, these, that, those 등은 3인칭 단수, 복수로서 동사의 어미에 변형이 수반된다. 즉 This is..., Those are...,

That runs... 등에서 보듯 be 동사를 비롯해 동사의 변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동사의 변형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것’, ‘그것들’에 해당되는 복수형은 명확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구조가 인지적 부하량의 차이를 가져와 주제 수행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추론된다.

<표 3>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주제 유지 비교

주제 유지	한국 유아(N=8)		미국 유아(N=8)		Z 값
	총빈도(%)	평균빈도	총빈도(%)	평균빈도	
주제 협력	767(74.61)	95.86	375(83.52)	46.88	-2.52*
주제 보완	261(25.39)	32.64	74(16.48)	9.25	-3.05**
계	1028(100.00)	128.50	449(100.00)	56.12	-2.63**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유아의 주제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국 유아 8명과 미국 유아 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정 생활에서 발생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2시간 동안 녹음하여 언어적 상호작용에 나타난 유아의 주제 수행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 및 미국의 만 3세 유아는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주제 수행을 할 수 있다. 즉 주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제 설명을 산출했다.

둘째, 한국 및 미국의 만 3세 유아가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주제 수행의 경향은 유사하다. 즉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는 모두 주제 수행 중 주제 유지를 가장 빈번히 산출했으며, 다음으로 주제 종결 및 제시를 빈번히 산출했

다. 그리고 주제 이탈은 가장 적었다. 주제 수행에서 주제 이탈은 2% 정도에 불과해서 주제 수행 사례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처럼 주제에서 이탈된 사례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주제 이탈 비율이 유사한 것은 주제 수행에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은 한미 유아에게 유사하게 갖추어져 있어 언어학자들이 주장한 인지적 보편성 가설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에 비해 유사한 언어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언어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더 수월하고 풍부하게 주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주제 유지의 하위영역에서도 주제 보완이 주제 협력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주제 협력이 주제 보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한국 유아와 미국 유아의 주제 수행은 달랐다. 즉 한국 유아가 미국 유아보다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주제 수행을 더 많이 보였다.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보다 주제 수행의 모든 과정에 더 빈번

히 참여했다. 즉 주제 종결과 더불어 새로운 주제의 제시와 주제 유지에도 더 자주 참여했다. 주제 유지의 하위영역인 주제 협력과 보완에서도 한국 유아가 미국 유아보다 더 빈번하게 참여하였다. 언어 산출능력이 다른 것은 인지적 능력의 차이와 언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산출의 수월성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 유아는 한국어의 언어 구조적 특성상 미국 유아에 비해 과거를 회상하며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Mullen & Yi, 1995). 영어의 경우 주제 수행 시는 주제를 지시하는 대명사가 단수, 복수형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서 3인칭 동사의 어미가 변형되어야 하므로 이 과제 수행에 인지적 부하량이 상당히 크게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그러한 단수 복수의 분화나, 동사의 어미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주제 수행에 요구되는 인지적 부하량이 적다. 따라서 한국 유아가 미국 유아보다 더 풍부한 주제 수행을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지만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자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2시간이나 장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녹음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아의 주제 수행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문화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성미영(1997). 유아의 어휘양식과 의사소통 의도 및 주제 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한(1982). 한국 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책략 모형.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 Bloom, L., Rocissano, L., & Hood, L. (1976). Adult-child discourse:Developmental interaction between information processing and linguistic knowledge. *Cognitive Psychology*, 8, 521-552.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Tal, J., Ludemann, P., Toda, S., Rahn, C. W., P cheux, M., Azuma, H., & Vardi, D. (1992). Maternal responsiveness to infants in three societies: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Child Development*, 63, 808-821.
- Brinton, B. & Fujiki, M. (1984). Development of topic manipulation skills in discours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7, 350-358.
- Chapman, R. S. (1981). Exploring children's communicative intents. In J. F. Miller (Ed.), *Assessing language production in children:Experimental procedures*. Baltimore:University Park Press.
- Foster, S. H. (1986). Learning discourse topic management in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231-250.
- Goodenough, D. R. & Weiner, S. L. (1978). The role of conversational passing moves in the management of topical transitions. *Discourse Processes*, 1, 395-404.
- Hurtig, R. (1977). Toward a functional theory of discourse. In R. O. Freedle (Ed.), *Discourse production and com-*

- prehension*. Norwood, NJ: Ablex.
- Keenan, E. O. (1974). Conversa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 163-183.
- Keenan, E. O. & Klein, E. (1975). Coherence in children's discours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4*, 365-380.
- Keenan, E. O. & Schieffelin, B. B. (1976). Topic as a discourse notion: A study of topic in the conversations of children and adults. In C. N. Li (Ed.), *Subject and topic*. NY: Academic Press.
- Kertoy, M. K. & Vetter, D. K. (1995). The effect of conversational setting on topic continuation in mother-child dyads.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73-88.
- Mullen, M. K. & Yi, S. H. (1995). The cultural context of talk about the pas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utobiographical memory. *Cognitive Development, 10*, 407-419.
- Richman, A. L., Miller, P. M., & LeVine, R. A. (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 614-621.
- Roth, F. P. & Spekman, N. J. (1984). Assessing the pragmatic abilities of children: Part 1.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assessment paramet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9*, 2-11.
- Schegloff, E. A. & Sacks, H. (1973).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4*, 259-327.
- Wanska, S. K. & Bedrosian, J. L. (1985). Conversational structure and topic performance i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579-584.
- Wanska, S. K. & Bedrosian, J. L. (1986). Topic and communicative intent in mother-child discourse. *Journal of Child Language, 13*, 523-535.
- Wanska, S. K., Bedrosian, J. L., & Pohlman, J. C. (1986). Effects of play materials on the topic performance of preschool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7*, 152-159.